

2018 오병이어선교회 / 통권1호

풍성한세



굶주림과 가난, 영양불량, 복음의 소외로 고통받는
Yellow Window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더욱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었다

글. 지명. 오병이어선교회 초대회장(前)
WCS(전인공동체학교) 팀장(現)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_마25:40”

1986년 8월 25일 창립한 오병이어 선교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막6:37)’는 말씀에 도전하였다. 1988년부터는 서울시 결식아동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급식을 나누며 시작하였고, 지금은 고통받는 지구촌(Yellow Window)의 어린 학생들,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육과 급식, 교회 개척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뿌듯한 마음으로 올해 6월 초에 몽골 옴스 아이막 올람곰에 위치한 ‘영원한 사랑의 교회’에 비전트립 팀을 구성하여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 2000년도부터 먼지를 휘날리며 산 넘고, 초원을 달려 자연재해로 인하여 굶주린 이들에게 밀가루, 설탕, 구제품을 전하러 갔던 땅이었다. 이번에도 험벗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 산 위 외딴 허름한 게르(집)를 찾아갔다. 우리는 그곳의 목자 가정을 위해 위로하며 기도도 함께 하였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나의 심령에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실 것이 없고, 배가 고픈 때 네가 나를 보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로 채워 주는구나.’ 하시기에 어리둥절하여 ‘제가 언제 주를 보았나이까?’ 하고 다시 반문하였다. 이에 주님은 나를 충만케 하시면서, ‘너희가 찾아온 이들 가운데 내가 있으며,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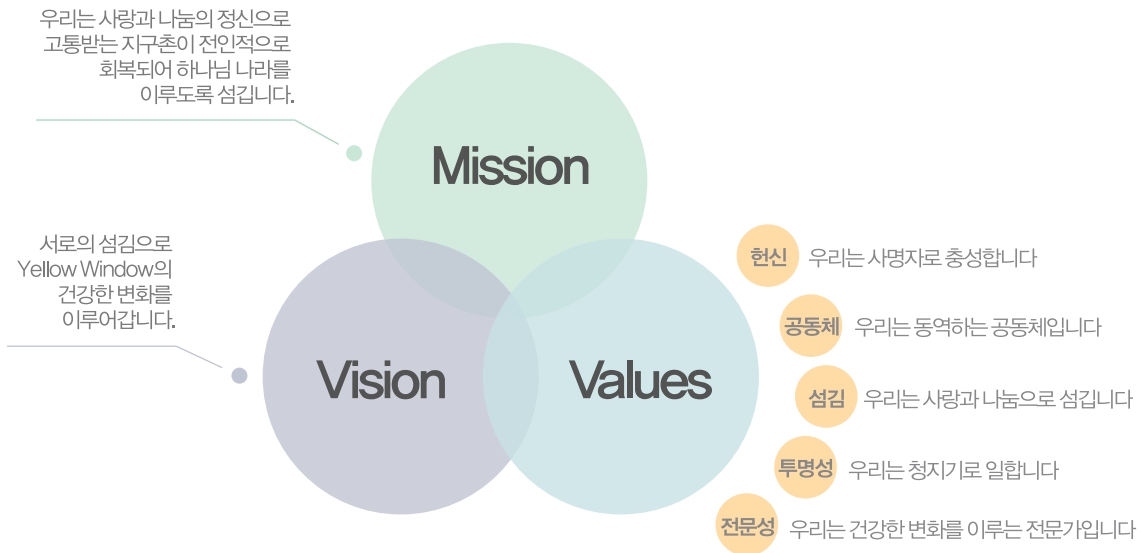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사역을 하던 때인데, 공휴일이라 도시락을 싸지 않고 공동체 식구들과 기도를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교포 80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고 했다. 급히 분식집에서 한 상을 마련하여 드시라고 하니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밥공기를 물에 말아 김치 하고만 드셨다. 그 모습을 보며 하필이면 밥을 하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생각이 난 것이다.

세월을 지나 몽골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 주님은 다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찾은 가치와 헌신으로 33년의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었다.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이 우리의 손길을 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창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선교동원, 훈련,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에 총체적 선교 전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Mission Strategy 중점전략

복음, 제자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유,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합니다

선교사 양성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필드를 채우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합니다

헌신 및 파송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총체적 선교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식 이름으로 연 1회 발간
됩니다.

2018년 통권1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곽미란
발행일 2018년 8월 1일
기획 및 편집 임희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서교동442-5)
수양빌딩 3,4층 (03996)
02,322,4630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표지_마다가스카르 어린이

Contents

- 03 칼럼 / 지명
- 06 선교현장 이야기 / 마다가스카르1
- 08 선교현장 이야기 / 마다가스카르2
- 10 선교현장 이야기 / 대만
- 12 선교기획 시리즈 / 이대행
- 16 Yellow Window 알아가기 / 라오스
- 18 Yellow Window 정탐보고 / 라오스
- 20 국내현장 이야기 / 이혜리
- 22 오병이어 + People / 황혜경, 전유자
- 24 2018 오병이어 뉴스
- 26 오병이어 비전 2036 / 곽미란

선교사 파송현황



Yellow Window는 복음의 소외, 굶주림과 가난, 영양불량의 악순환을 끊고, 전인적인 회복을 꿈꾸는 우리 이웃들의 땅입니다

- 모성과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해결할 긴급한 영양사업을 중심으로 한 최우선적인 접근이 필요한 **우선중점사업국가**
- 식량안보, 식수위생, 국민곤충의 영양문제를 해결할 통합적 중재 사업이 필요한 국가
-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장기적 개발 사업이 필요한 국가

선교현장 이야기_마다가스카르1

아주 풍성한 만찬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며 시작된 마마센터 가족 이야기

글. 유수진,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2013년 5월 8일 1기 마마스쿨을 시작으로 오병이어선교회 마다가스카르 지부가 마마센터의 엄마, 아이들과 함께 지낸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해 배우고 자라가는 마마센터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마마 기도회로 가는 이유_엄마의 이야기’

오늘따라 빨래하는 판자 아주머니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마마 기도회에 늦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건너편 동네에 일거리가 있다는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지만, 마음을 잡고 열심히 빨래를 행구어 냅니다.

남편 없이 빨래, 청소 등의 하루 벌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판자 아주머니는 작년에 마마센터 하이스쿨 बैं크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하이스쿨 बैं크는 아주머니처럼 아이들의 학비 준비가 어려운 마마들이 조금씩 모아 학비 절반을 나누어

매달 저금을 하면 학비의 나머지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판자 아주머니는 올해에도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첫째 딸(파헨드레나)의 학비도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주머니의 몸은 지쳐있지만, 마마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넘칩니다.

‘저의 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 딸 파헨드레나 이야기’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판자 아주머니의 첫째 딸 파헨드레나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역사, 세계 역사 공부가 재미있어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졸업 후에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학비가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작년 틴스 캠프 때 배웠던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요셉처럼 파헨드레나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않을게요. 저도 요셉처럼 늘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나의 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세워지고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파헨드레나는 잠시 고민을 잊고 내일 오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즐거운 활동을 하게 될 틴스클럽 시간을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축구 골대도 주시네요? - 막내 루바 이야기’

어린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공만 찬다고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은 루바는 시무룩하게 키즈클럽이 열리는 마마센터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대문을 연 순간 루바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마마센터 마당 한 편에 세워져 있는 멋진 축구 골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늘 집 앞 공터에서 친구들과 벽돌 몇

개로 골대를 만들어 놓고 비닐을 뭉쳐서 만든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키즈클럽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바로 루바의 눈앞에 멋진 축구 골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루바는 곧장 축구 골대 앞으로 달려가 키즈클럽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을 차며 시무룩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지난 5년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마마스쿨, 마마기도회, 키즈클럽, 틴스클럽, 에스더성경반, 하이스쿨뱅크, 생명의빵, 독립기념일 및 크리스마스 행사, 파랄라자초등학교 사역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빈민 지역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영과 육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마마센터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올해 마다가스카르 지부에 새롭게 열어주신 WIS(WITH International School) 사역과 아프리카 교육사업발굴 프로젝트 사역을 통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오병이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겸손히 내어드리며 마다가스카르 지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글. 누루, 마다가스카르 지부 현지 사역자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세 곳의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많은 젊은 동료들과 지내는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크리스찬이 없었고 동료간에 존중하지도 않고 진실되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 으로 저를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주셨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하나님께 서는 저를 말씀 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도 사가 되는 신학과정에서 3년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세상의 시끄러움이 가득한 그 공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013년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돌보던 교회친구가 그 어린이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장준호 조시경 선교사님 부부가 주호택 오명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운영하는 '마마스쿨'에서 요리를 배우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신학 공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마마스쿨 공부, 정말 바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드디어 하나님께 서는 저의 기도 에 응답 해주셔서 장준호 조시경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11월 1일에 저는 신학공부를 마치고 교단으로부터 전도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에서 어머니 및 어린이 회원들을 가르치는 일로 함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으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 정식 사역자 로 일하게 되었고 저의 남편도 장준호 조시경 선교사님 부부 댁에서 집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면서 많은 용기가 생겼고 제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새로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 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저에게 정말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섬기는 위드 마다가스카르 지부 안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있어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직면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에서 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건강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의 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5장 16절 말씀





📍 대만선교. 맨땅에 헤딩하기!

글. 허중은. 대만 선교사

1. 정탐의 중요성 - 여호수아와 같게 되어 보기!!

3년 전 10년간 중국에서의 사역을 “중국 공안에 의해” 부득이하게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만 으로 인도하셨다. 중국과 대만이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 두 나라이지만 우린 마치 13년 전 처음 선교지로 나간 애송이 선교사처럼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새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정탐이었고 오래지 않아 타이중 시와 인근 지역들의 지리, 종족, 문화, 종교적 특성 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탐을 하면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대만 골목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사당을 볼 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대적기도를 잊지 않았고 이 과정을 통해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했던 것이 이해되었고 대만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미 끝낸 상태였기에, 자기 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인 이 땅을 자기들만 큼이나 알고 있다는 것에 감탄하며 흥미로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친밀감 덕분에 더 깊은 관계로 쉽게 발전할 수 있었다.

2. 무대보 정신 - 일단 부딪쳐 보기!!

대만 도착 후 처음 집 앞 교회에 몇 주 동안 나가며 목사님 부부와 사귀려 했으나 오히려 자기교회성도들을 뺏길까 하고 보내는 경계의 눈빛에 낙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 그 교회에 비치된 ‘소수민족선교중심’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발행한 기간지를 보게 되고 이 선교회가 대만 원주민이 아닌, 중국의 소수민족을

타겟으로 선교하는 단체임을 확인했을 때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놀라왔다. 그 선교회 간사님 한 분이 친분이 있는 여자전도 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 집에서 열리는 금요기도회에 초대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3. 기도 사역 - 탄알 장전하기!!

대만에 도착해서 바로 사역이 열릴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거부도 당해 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낙심하게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기도를 시키시기 위함 이다. 기도 없이 뛰어들어 사역은 내 방식대로, 내 만족을 위해 쌓은 “내 업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주도 빠짐없이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여 대만과 중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는 전투에 임하기 전, 탄알을 장전하는 과정이다.

4. 한 사람이 중요하다 - 첫 눈물지 만들기!!

그 금요기도회 시간 우리의 간증을 통해 믿음과 용기를 얻었 다며 종종 영적인 조언을 구하던 중국 선교한신자인 자매에게 ‘基督生 平’이라는 교재로 성경공부를 제안했더니 흔쾌히 동의하여 우리 집에서 매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대만에 온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지만 이조차 신이 낳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의 불안한 “백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낮추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엔



몰랐었다. 우리가 그 때,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작은 첫 눈뭉치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5. 몸집 키우기는 오히려 쉽다 - 눈사람 만들기!

일단 첫 눈뭉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눈사람 만들기는 비교 적 수월하다. 이제 눈뭉치를 눈밭에 굴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 재배가 어느 원주민목사님 부부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열정적으로 전했다니 자기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두 번째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그 사역자가 또 다른 사역자들을 소개하여… 우리는 현재 대만 전역에서 8개 반, 11개 교회 및 선교단체, 43명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찾아가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6. 차별화 전략 -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우리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우리를 추천했을까? 그 대답은 좀 어처구니없는 데서 시작된다. 시골지역 원주민 사역자들과 공부하던 첫날, 우리는 그들의 특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원주민들은 찬양이나 기도는 매우 뜨겁게 하고 좋아하지만, 책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주간 공부를 진행하다가 이들의 특성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으로 우리는 부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생애 및 사역과 사건들, 그리고 설교와 비유의 내용 등에 대한 시청각 자료들을 만들고, 학생들(사역자들)이 직접 색칠하고 오리고 붙이는 활동들을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도록 했고 때로는 노래와 게임을 통해 내용들을 암기시켰다. 그런데 이런 부교재와 학습 활동들을 개발,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오고 모든 수업내용을 경청하며 집중하는 그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열광하는 그들, 그리고 스승의 날이나 명절이 되면 정성껏 쓴 카드와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는 그들. 그 카드의 내용 중,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격려의 글이야말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한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7. 우리는 도움이일 뿐 - 나그네 인식 갖기!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자들만 학생으로 붙여주셨다.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면 자기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중국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므로써, (우리가 더 이상 못 하게 된) 중국 선교를 언어의 장벽 없이 훨씬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벌써 이 교재로 자기 교회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있고, 중국에 들어가 가르치는 사역자들까지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옆에서 돕는 나그네들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사역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현지 사역자들이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옆에서 돕는 “나그네 인식”을 가지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13년여 동안 중국 운남성과 대만에서 우리의 선교사로서의 제자 삼는 사역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만 땅을 복음과 사랑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온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대만 크리스천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 기도해 주세요

1. 우리의 “찾아가는 신학교” 사역에 지혜와 성령의 기름부음을 허락하여 주사, 대만의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각자의 교회와 선교지에서 재생산이 지속되게 하소서.
2. 온가족의 건강, 안전, 성령충만을 허락하여 주소서.
3. 학업 중인 자녀들(조나단, 조안나)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앞길을 인도하소서.



글. 이대행. 선교한국 상임위원장

본 글은 선교한국 2016 대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계의 동향과 이에 따른 선교적 쟁점이 될 사항들에 대해 선교한국 2016 프로그램위원회가 선정한 GLOBAL MISSION TRENDS의 소개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와 현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해 보이는 모든 글로벌 이슈들과 트렌드 역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따라서 영문 밖 세상에서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FOCUS 01. 세계인구 통계 구조변화

유엔 미래보고서 2050'에서 말하는 세계 메가트렌드 네 가지는 '개인 권한 강화', '다자 지배 권력 구조', '식량 물 에너지 수요증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인구통계학적 변화'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세계 인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증가세가 주춤해졌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교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즉 서구권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비서구권의 세계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글로벌 노스에서는 인구 감소,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계인구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의 13%에서 2050년 2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선교 관련 이슈들은 '기독교 인구와 이슬람 인구의 동시 증가와 대립', '도시화와 도시 빈민의 증가', '전통적 선교 방법의 어려움', '박해', '오순절 운동의 성장', '변영신학과 혼합주의의 증가'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FOCUS 02.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시대



디아스포라는 특정 인종 집단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 또는 그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발적 디아스포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행을 선택한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을 의미하고, 비자발적 디아스포라는 국가 간 전쟁이나 테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타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난민과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안산은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170여 개국에서 온 200만 디아스포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디아스포라인가요? 우리와 한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진 탈북자들은 국내에 이미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일은,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일은, 우리 이웃으로 온 디아스포라들이 대부분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있던 분들이 우리 옆에 와 있으니,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FOCUS 03. 타종교 이슈

2013년 로잔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인구의 90%가 ‘종교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을 더 추구하면서 동시에 더 종교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종교화되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타종교의 동향을 살펴보면, 종교적 세속화와 근본주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또는 물질주의가 많은 이들의 사고를 지배하면서 각 종교가 가진 가치를 약화시키고, 그 가치가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종교성을 추구하지만, 그 깊이는 얕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화에 반해 나타난 근본주의는 민족주의와 혼합되면서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정치 사회적인 환경과 맞물려 사회 간, 그리고 국가 간,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종교와 공존하면서도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속화되어가는 타종교의 이슈를 바라볼 때,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FOCUS 04.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은 디지털이 0과 1로 구성된 것처럼 문자화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직업과 취미와 나이에 의해서, 가상공간에서 형성된 다양한 하위문화의 그룹에 들어가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사랑과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디지털, 사이버 세상 등의 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소통의 방식과 영향력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방법에 따른 다양한 전략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디지털 세상을 포함한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FOCUS 05. 미션의 프런티어들

지난 200년 동안의 개신교 선교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 곳, 낮은 종족들(UNREACHED TRIBES AT FAR AWAY PLACES)’, ‘선교사들의(OF MISSIONARIES)’, ‘교회로(INTO CHURCH)’, ‘복음 전도와 개종(EVANGELISM AND CONVERSION)’

반면, 현대 선교적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규모의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과거 생각했던 민족과 종교에 의한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그 안에는 직업, 취미, 나이, 라이프 스타일 등에 의해서 무수한 하위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문화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지는 소수의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문화그룹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미전도 종족은 바로 이런 작은 문화 그룹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대의 사람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다양성이 극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글로벌 메가 문화(GLOBAL MEGA CULTURES)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예술, 비즈니스, 환경 보호, 인권 보호, 기아 해결, 평화와 반전, 교육과 보건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인 메가 문화는, 다양한 작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구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갈 때만, 종교와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은 이곳에서도, 먼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선교는, 바로 이런 글로벌 공적 영역 안으로, 즉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 성육신(INCARNATION)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는 공부와 전공이 선교와 연결되고,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선교의 프런티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나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FOCUS 06. 미셔널? 미션 + 열!



미션(MISSION)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전 세계를 회복하심을 말합니다. 미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미션 프로젝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들이 펼치는 다양한 미션들은, 선교적 상황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총체성을 회복하도록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미션(MISSION).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의 자세와 열! 그것이 '미션 + 열'입니다. 세상에서 '미션 + 열'하게 사는 일은 치열한 영적 전투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미션은, 지금 이곳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미션얼 라이프를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션얼 공동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션얼 라이프를 살아내기 위해서 형성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미션얼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고, 성도들을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의 사용이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션얼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자라납니다. 성령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FOCUS 07. 파트너십

선교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완성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총체적 선교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계선교를 기획하셨고, 역사를 통해 이루어 오셨고, 우리가 나아갈 영문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사역을 넘어서 우리의 선교를 삼위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가장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충분한 이해를 통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식과 삶이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 위에 기반을 둔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앞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영문 밖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전 삶의 패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당장 요구하시는 삶을 위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펼쳐진 다양한 세계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라오스 Laos





국명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975년 12월 2일 수립)

수도 비엔티엔(Vientiane)

면적 236,800 km(한반도의 약 1.1배)

인구 7,126,706명(2017)

종교 불교 64.7%(정령숭배적 불교), 정령숭배 31.4%, 기독교 1.7%, 기타 2.1%
- 모든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은 출가하여 3개월~1년간 사원에서 생활하며, 사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인재양성의 중심역할을 함

종교 GDP 1인당 기준 2,567\$ 세계 134위 (2017 IMF 기준)
- 인구의 70%가 1차 산업에 종사, 2차 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생필품이 태국산

민족 라오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49개의 민족 집단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 민족 집단의 수는 200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
- 거주지에 따른 소수 민족 분류: 라오쑹(전체 인구의 10%, 산악지 라오족, 몽족이 다수를 차지), 라오통(30%, 구릉지 라오족, 화전농으로 생계 유지), 라오희(50%, 저지대 라오족, 비옥한 메콩강 유역에서 수전농에 종사)

보건영양 - 보건인력비율 0.182명/1,000명
- 일일에너지섭취량 2,330kcal(OECD 국가 평균 3,400kcal, FAOSTAT)
- 출생률 23.6명/1,000(2017)
- 영유아 사망률 79명/1,000명(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 5세 미만 아동의 성장부진(Stunting) 36%(2015)
- 소모증(Wasting) 6.4%(2011)
- 저체중(Underweight) 26.5%(2011)(WFP)
- 빈혈유병률이 41.6% (만성 영양부족상태가 만연함)

지정학적 고립과 민족 다양성은 라오스가 정치 문화적으로 통합되는데 심한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최근 민족다양성을 오히려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유산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립국(孤立國)이라는 내륙국가의 단점을 교차국(交叉國)이라는 장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기도제목

1. 라오스인 상당수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종족종교와 혼합된 불교가 곳곳에서 성행한다. 불교 사원은 5,000개인데 비해 교회 건물은 250개밖에 안 된다. 라오스 전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기도하자.

2. 라오스는 3모작이 가능할 만큼 좋은 자연조건을 가졌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기술과 인력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거나 정책을 시행해도 파급력이 적다. 라오스의 식량안보 문제와 영양실조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국가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개선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_ [기도24·365 국가기도정보], [오병이어선교회 라마나눔기도]

NIS 이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라오스

글. 지성. 라오스 선교사



그 땅에 살면서 깨닫게 된 소중한 것들

라오스 국립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이름도 모를 예쁜 분홍색, 하얀색 들꽃을 꺾어다 며칠 볼 요량으로 생수병 물에 담가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길어야 일주일이겠지 내 심 그렇게 생각했던 들꽃은 그 후로도 5~6개월은 족히 더 살았다. 비록 꽃은 떨어졌지만 대신 뿌리가 나더니 새로운 잎을 내었고 양분 없는 물만 먹고도 그렇게 푸르게 기숙사 방에서 한참을 살았다. 한국에 있는 들꽃도 이렇게 오래 사나? 문득 궁금했다. 라오스 사람들도 라오스 들꽃처럼 숨겨진 풍성한 생명력과 소망이 충만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벌써 4년차에 들어선 라오스에서 살수록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라오스의 필요는 경제개발이나 성장, 문명의 발달,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른 빈곤국들이 그렇듯 라오스인들은 Slow Life를 스스로의 장점이라 생각하며 가난한 것이 문제 될 것 없이 나쁜 본인들의 삶이 행복하다 여긴다.

이미 자연 안에서 풍성한 라오스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둬나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그래야 라오스 길거리의 풍성한 망고 열매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높은 출생률이 높은 기대수명으로까지 이어지며, 2~3모작이 가능한 농지에서 영양불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열강의 지도자들이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한 것만 봐도(2012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 2016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 2017 중국의 시진핑주석 등), 세계정세에서 갖는 라오스의 현 위치를 반증한다. 이에 라오스인들도 세계열강의 이권의 대가로 주어지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한 삶을 꿈꾸지 않는다. 라오스인들은 두려움 없는 평안과 기쁨, 영적 충만함, 거짓 없는 거룩한 삶을 원한다. 인구의 80%가 힌두교와 혼합형태의 불교를 믿는 라오스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와 잘못된 신념들로 가득한 곳이다. 스마트폰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던 문명을 즐기는 대학 친구들조차도 교수님 덕의 우환은 집안의 큰 나무를 베어서 귀신의 보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두려움과 거짓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상숭배는 라오스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분리시켜 놓았다. 그래서 주어진 풍부한 자원과 번성함을 거룩함으로 돌보지 못한 채 버려두고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NIS를 기반으로 한 Laos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NIS(Nutrition Intervention School)는 ‘지역사회 식생활 영양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두고 현지 지역조사를 통해 현지의 영양취약계층을 만나 보건영양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영양중재활동을 기획, 실행해 봄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건강한 변화와 전인적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라오스에서 9기 과정이 약 7주 동안(2017.12.26. ~ 2018.2.14.) 5명의 교육생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실습은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냉위양캄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영양·식생활조사, 점심 급식 및 영양위생교육을 시행하였고, 유치원 영유아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설문조사와 이유식 조리시연 및 영양위생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기관 방문,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식량안보 및 영양적 관점에서 라오스를 알아보고자 했다. 조사한 정보들을 토대로 발견 한 문제들은 아동의 불균형적이고 비위생적인 식습관 문제와 주양육자와 지역사회의 영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파악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라오스 사람들 내면 깊이 자리하고 있는 진리를 가리는 거짓과 잘못된 믿음이 어린이 영양과 모성 건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특히 쏟아지는 상품선전과 마케팅 전략에 길들여 지고 자주 노출된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은 체감되지 않는 정부의

영양교육 권고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NIS 과정 중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리실습과 영양교육을 통해 바른 정보를 전달하였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고자라도 변화하려는 어머니들을 보게 되었다. **바로 자신들이**, 제도적 상품 홍보와 가격조차 싼 콜라 대신 구하기 쉽지 않고 맛도 없지만 자녀의 건강을 위해 우유를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임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비전이라 여겨졌다**. 하나님에 준비해두신 사람들, 변화의 주체, 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어머니이든, 오병이어 라오스지부의 비전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거듭난 그를 통해 라오스를 섬기는 것이다. 거대한 거짓과 우상숭배로 생명이 없는 라오스의 견고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변화를 갈망하는, 바로 라오스인들이다.

라오스와 국경을 맞닿아있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본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먼저 교회가 세워져 현지 일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지역사회 영양활동에 헌신하여 열방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라오에서도 교회공동체가 세워져 이들을 통해 사역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략이 성취되는 꿈을 꾀다. 비록 공산국가체제로 인한 전도가 어렵다하더라도 1~2명만 있어도 교회공동체안의 생명력은 충분하다.



왼쪽부터) NIS를 통해 어린이가 교육하고 있는 지성 선교사, 환하게 웃고있는 라오스 어린이들

오병이어선교회 지부연합리트릿

우리 주안에
한 가족

글. 이해리. 오병이어선교회 간사

오병이어선교회 내에는 Yellow Window 땅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국내지부(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세종대전지부)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23,24일 1박 2일간 각 지역에서 지부모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지부장님과 간사님께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지고 2018년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기 위해 지부연합 리트릿을 부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에서는 30년간 섬겨주신 황혜경 지부장님과 김아름 간사님이 대구경북지부에서는 새택 황정숙 간사님과 반가운 얼굴 한은경 선생님 그리고 쌍둥이 주안이 주나가, 부산경남지부에서는 초창기 캠퍼스모임 학생이셨던 김학선 지부장님과 노유정 사모님이 그리고 울산 새택 김샤론 간사님과 막내딸 주연이와 함께한 이라희 선생님이, 세종대전지부에서는 글 쓰는 국어 선생님 임진묵 지부장님과 공미순 간사님, 자녀 봄이와 한빛이가 함께 하였습니다.

첫날에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서로 나누고 예배와 레크레이션으로 마음을 열며 지부장님과 간사님들의 삶을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때 본부 간사로 섬기시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엄마 간사님들의 나눔 가운데 엄마라는 자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제가 누군가가 소원했었던 자리를 이어받아 섬기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때 오병이어선교회 캠퍼스모임에 함께 했었고 지금은 부산지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학선 지부장님께서 나누어 주신 삶의 내용을 들으며 오병이어선교회 안에서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는 오병이어선교회에 붙여주신 영혼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 선교사님의 나눔을 통해 고통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각 지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오병이어선교회의 방향과 오병이어하우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부족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생각해 봅니다. 각 지부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오병이어선교회는 한 끈으로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안에 풍성함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더불어 지부연합 리트릿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지부장님과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리트릿 모든 장소를 섬겨주신 김학선 지부장님과 모든 일정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쪽부터) 이용숙 초대회장님의 「공동체 영성」시간,
스마일! 김학선(부산), 황혜경(광주) 지부장님,
레크레이션 중인 김아름(광주), 공미순(세종), 박가희(본부) 간사님,
다함께 "오병이어 화이팅!"
「쿵」공방에서 부산지부 회원분들과 교제

"잊을 수 없는 오병이어와의 만남"

글. 황혜경. 오병이어선교회 광주전남지부장

30년 전 대한영양사협회 기독영양전문인들의 모임은 작은 밀알이 되어 지구촌의 기근과 질병과 무지와 전쟁의 재해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계획하고 계셨던 뜻을 오직 뜻대로 살아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숙회장님 기억나시지요?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자 광주에 온 그 하룻밤의 만남으로, 정순옥영양사님께서 호남신학대학교에 나이 많은 신학생을 소개하겠다고 하니 회장님은 싫다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소개받았던 그분과 제가 가정을 이루어 아들, 딸을 주셔서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해 하였고 그때 저는 일신방직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 결혼하고 호남신학대학교로 옮겨 들어가 나오기까지 26년 4개월의 세월이 지났으나 결혼 안 한다고 하신 회장님은 주님의 동역자로 오병이어의 밀알로 사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남편목사님이 시무하는 청평중앙교회에 성도가 몇 명 안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간사님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지금까지 존재의 근원이 되었고 지금의 청평은 Slow City란 마을로 느림의 미학이 있는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가 5년 전 김아름 간사님의 남편 따라 광주로 오게 된 계기를 통해 계속적인 모임을 광주, 목포, 창평을 오가며 오병이어의 사랑을 나누고 Yellow Window를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며 기도하시게 하셨습니다. 지부에서 1호 김현호형제는 WCS를 마친후 마다가스카르에서 2년 동안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병이어가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의 저울을 기준 삼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양육, 배움, 섬김을 통한 복음의 삶은 전인교화와 더불어 공동체 사명자들의 사랑을 품은 신의와 열정과 헌신의 본이 되어 많은 열매들로 채워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막6:37)'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경험한 기적의 현장에서 배물리 먹이는 차원만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오병이어와 오천 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이의 바울 수 없는 간격이 곧 우리의 공동체의 현장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간격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에도 주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기본 소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재자로, 자녀로 부르신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도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광주전남지부모임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황혜경 지부장

수정 한과 체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보기도로 동역하는 해외선교

글. 전유자. 오병이어선교회 회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병이어 해외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에 처음 발걸음 한 것은 김진희 선교사가 상해로 파송 받았던 2008년도였습니다. 제 작은 아들을 데리고 간 그 기도모임에는 저의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주범순선교사의 자녀 수아와 조시경선교사의 자녀 윤지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기도모임을 하고 아이들은 같이 놀면서 토닥토닥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다음 모임은 어찌해야 할까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훌쩍 자라 저보다 키가 더 커졌고 기도모임도 어른들만 모인지 오래되었습니다.

야곱이 압박강을 건널 때 형 에서로 인해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내고 홀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낯선 땅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저는 작지만 같이하는 지원군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 영적 고갈이 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가 본인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도 선교사님들께 사역 속에서 힘드실 때 마다 칠천 명중에 한 명이 되어 선교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 모임을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6학년 될 때까지 응급실 한번 가지 않았던 큰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기도모임을 시작하고 두 번 빠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천에서 가다 보니 피가 나기 시작하고 당시 제가 드림스타트에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겹치는 핑계거리가 생겨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큰아들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자동문에 엄지발가락이 끼어 큰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태풍이 와서 아이들 둘 다 선교원과 학교에 가지 않았기에 집도 걱정이고 아이들만 놓고 가기에 좀 안심이 안 되어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큰아들이 학교에서 팔이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저는 일 년 전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병원의자에 앉아 참담해 했던 기억이 함께 오버랩 되었고 또 다시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두 번의 사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시간과 큰아이 수발까지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였구나'였습니다. 저는 기도모임을 아주 작은 일로 한번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국내 소식 및 광고

선교사 파송

2018년 2월 23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Yellow Window로 나아가는 천진광/하미정(미얀마), 윤미희(마다가스카르), 박민경(캄보디아)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Yellow Window 연합예배

오병이어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Yellow Window를 위해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7시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상반기에는 'Global Mission Trends', '라오스', '북한', '몽골 옴스'를 위한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라마나웃 기도회

Yellow Window 나라에 대한 정보와 이슈 등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기도회로 상반기에는 인도&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였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전 8:30분에 계속됩니다.

국제영양활동가

저개발국 지역사회의 영양, 위생, 보건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국제영양활동가 교육과정은 상반기 5월12일~6월9일까지 토요일 5주과정으로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10월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2018년 7월7일(토) 오전10시, 전국식품영양전문인연합예배를 전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직장사역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대표로 역임하신 방선기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직장과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간증이 있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WCS(전인공동체학교)

34기 WCS가 8월20일(월)~11월2일(금)까지 11주간 마다가스카르에서 열립니다. 비전트립은 탄자니아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를 세우는 훈련학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

매년 식품영양인의 진로와 준비, 정체성과 비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누는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가 2018년 10월27일(토)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기모임

IFNee(International Food&Nutrition) 아이브이 캠퍼스모임

상반기에는 IFNee 캄보디아(수원대), 라오스(가천대), 탄자니아(캠퍼스연합)로 총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각 나라의 프로파일과 식문화체험, 오병이어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영양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직장부 모임

식품영양관련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관심있는 선생님들과 매월 첫째주 목요일, 모임을 통하여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모임

광주전남/부산경남/대구경북지부에서는 매월 1회 라마나웃스터디, 세계관 스터디 등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세종대전지부는 중고등학생들과 '위드동아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부연합리트릿

지난 3월23일(금)~24일(토) 1박2일동안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총23명의 본부 및 국내지부의 지부장, 간사들이 모여 귀한 나눔과 위로, 축복이 가득한 리트릿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소식 및 광고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밀플러스 맘&키즈

밀플러스 맘&키즈 사역의 중요한 부분인 현지작물을 이용한 영양보충식 생산공장이 지난 2017년 12월 27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의 정수 시스템도 3개를 설치하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양보충식과 깨끗한 식수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망의 새빛교회

소망의 새빛교회는 계속해서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말씀묵상, 학사사역 등을 통해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신앙의 뼈대를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미얀마 Myanmar

종퇴청소년 대상 식음료 분야 직업훈련 사역 스타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3년간 진행되는 '미얀마 양곤지역 종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역량강화사업'을 위해 미얀마 현지교육전문 NGO인 미따얼린(MTAL)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퇴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Tanzania

카사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진행중

지난 2월 정부의 제재로 잠시 중단되었던 학교급식이 5월부터 다시 재개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급식이 진행되고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신청하여 영과 육이 건강히 회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몽골 Mongolia

몽골 영유아급식관리

2018년부터 진행되는 몽골 영유아영양급식관리 증진사업은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 구립 유치원 아동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 및 유치원 관계자들의 영양급식관리 역량강화와 인식증진, 위생·영양급식 시범사업장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몽골 유치원 내 영유아 영양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몽골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영양급식관리체계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며 인식증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영과 육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몽골 옴스 '영원한 사랑교회' 화재복구지원 지난 6월, 전기누전으로 불이 붙어 영원한 사랑교회의 사무실과 창고 등이 타고, 지붕이 내려앉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향기기와 구호물품 등이 전소되었고, 교회의 전반적인 복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금을 진행하였고, 단체 또는 개인이 동참하여 교회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라오스 Laos

2017년 12월26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약7주간 5명의 훈련생이 참여한 가운데 라오스 비엔티엔 냉위앙캄 지역에서 9기NIS(식생활영양개선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27강의와 기관방문, 지역조사, 보고서작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North Korea

북한영양보충식 지원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영양 보충식이 2018년 8월, 22차로 H지역과 P지역에 4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가 더욱 완화되어 어려움 없이 더 많은 곳에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마마 성경학교 졸업식

마마센터에서 진행했던 마마성경학교(Basic Bible School)의 졸업식이 지난 5월 29일 총 41명의 마마들이 수료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두팀으로 나눠 졸업생들의 흥겨운 공연과 선물로 귀한 성경책을 드렸습니다. 마마들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독립기념일 나눔행사

6월26일은 마다가스카르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 날, 마다가스카르 지부에서도 함께 기쁨을 누리며 따뜻한 담요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담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성장과 성숙

글. 곽미란,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지난 2016년 오병이어선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 먼저 '오병이어 2036 비전 프라미스'를 선언하였고, 오병이어선교회를 모체로 하여 2006년에 설립된 위드는 '지속가능성 발전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같은 비전 안에서 각 기관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역할별로 연합하기 위한 고유 목적 체계와 공동체 성장의 영역과 성숙을 위한 도전과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첫 마음으로, 주신 비전의 순수성과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정직하게 '오병이어'를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분깃으로 주신 '영양과 복음으로 소외된 Yellow Window 지역'에 총체적 선교를 통하여 변화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도록 섬기는 오병이어선교회 사명을 굳게 하고자 한다.

앞으로 20년, 오병이어선교회 50주년을 향해, '오병이어 2036 비전 프라미스'를 되새기며 다음 세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헌신', '공동체', '섬김', '투명성', '전문성'과 오병이어 핵심가치인 '공동체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교역사 안에서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도하심' 받기를 소망한다.

분깃으로 보여주신 Yellow Window를 섬기기 위해 우선 1) 중점 20개 국가 선교전략 지역에 선교사 파송을 우선으로 주력하고 2) 오병이어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복음 사역과 전문인 사역의 연합과 조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3) 현지파트너를 세우고 함께하는 글로벌파트너십 협력 선교를 추구하며 4) 건강한 파송 구조를 이루기 위해 본부·파송 교회·후원자·국내외지부·선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MK 사역, 멤버 케어 등 선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재정비하고 5) 선교자원을 동원하고 훈련하기 위한 선교사 안식관 및 영성 훈련센터 마련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 오병이어 선교회 2036 비전 프라미스

1. YELLOW WINDOW 지역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의 삶으로 헌신합니다.
 - 오병이어선교회는 YW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인적 회복을 이루도록 섬기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헌신합니다.
2. 공동체 영성으로 함께하는 사역공동체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 오병이어선교회를 중심으로 (사)위드와 YW 영양개선연구원은 같은 비전 안에서 복음 사역과 전문인사역을 역할별로 조화롭게 연합 합니다.
3. 전문성을 갖춘 선교적 인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 선교전략, 단체조직운영, 선교훈련, 식품 영양전문인 사역 개발,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기관설립 등 다양한 전문성 분야의 선교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 YELLOW WINDOW 2016 중점 20개국 지역에 선교사를 우선으로 파송하기 위해 주력합니다.
 -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타 문화권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며 국제 선교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정착, 활성화합니다.
4.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쉽, 협력 선교로 동역합니다.
 - 교회, 국제선교단체, 타 단체, 후원자와의 동역을 확대하고 선교 현지 리더십을 세우며 서로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5. 오병이어 선교회 선교사 안식관 및 영성훈련 센터를 마련하여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합니다.
 - 공동체 영성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오병이어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날

제6회 2019 해외선교사 컨퍼런스

Yellow Window의 많은 나라에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해외선교사님들의
쉽과 위로, 축복과 연합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9년 1월 28일(월) ~ 1월 31일(목), 3박4일

장소: 부산 경성대학교(예정)

후원: 국민 479037-01-005619 (예금주: (사)위드)



하나님, 남편, 아내가 함께하는 35기 DUO WCS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 2019년 1월 26일(토)

장소: 중국 곤명 라마나웃수양관

훈련비: 부부 480만원(1인 240만원)

문의: 02.322.4630

‘너희가 먹을것을 주어라’ (막6:37)

고통받는 지구촌을 향한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 함께 **동참**해주세요!

오병이어선교회 후원

- 후원계좌: 국민은행 479037-01-005606 (예금주: (사)위드)
- 후원신청방법: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 후원

- 선교사 개별 후원계좌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322.4630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이 메 일: 52@yellowwindow.org

오병이어후원회 후원

은퇴선교사를 위한 안식관 마련 및 영성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회입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76-910016-75307 (예금주: 이영남)



QR코드로 후원하기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